

유럽 철기시대 방어시설의 등장 과정과 그 배경*

김종일**

초록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에 등장하는 오피둠은 원래 일종의 ‘마을’을 가리키는 용어다. 오피둠은 최소 10ha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그 안에 주거지와 각종 생산 시설은 물론 농경지, 상업 시설, 그리고 성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 교환을 포함한 경제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오피둠을 도시화의 시작으로 파악해 왔다. 실제로 유럽 신석기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장기적인 개인과 정치체의 성장과정에서 철기시대 초기의 성채 유적과 후기의 오피둠이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둠이 실제 방어 시설로 기능하였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평시에는 오피둠이 안과 밖을 구분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일부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방어 성벽으로서 기능하거나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오피둠의 성문을 주기적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함으로써 이 과정을 주도했던 지배층이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로마의 정복과 함께 이러한 오피둠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오피둠이 해당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주거 집단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수직적인 형태는 아니며 따라서 오피둠이 당시의 여러 주거 집단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오피둠을 중부 유럽에서 본격적인 도시의 시작이 아니라 유럽 선사 시대에서 시작된 도시화로 이르는 긴 여정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유럽 철기 시대, 할슈타트 문화, 라 텐 문화, 방어시설, 방어취락, 성채 유적, 오피둠, 상징체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22S1A5C2A04093621).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유럽 선사 및 원사 시기에서 철기시대는 물질문화 자체의 변동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 중기의 거석무덤을 특징으로 하는 TRB 문화 이후 신석기 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승문토기 문화(The Corded Ware Culture)(대략 기원전 3000년~기원전 2350년) 및 신석기 시대 말기의 벨 비이커 문화(The Bell Beaker Culture)(기원전 2800년~기원전 1800년) 이래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개인’(혹은 ‘개인성’)은 청동기 시대(기원전 2300년~기원전 800년)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청동 무구(단검과 장검, 창, 도끼, 투구와 갑옷 등등)와 청동제 면도칼 및 족집게와 같은 남성용 개인용품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외모에 대한 강조와 함께 남성성이 한층 더 강조되며 이는 청동기 시대 후기(기원전 1200년~기원전 800년)에 유력 개인과 정치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¹ 이러한 정치체의 성장은 소위 할슈타트 문화 후기에 해당하는 초기 철기 시대에 들어와 소위 성채 유적(hill fort 혹은 fürstentzitze)의 등장(대략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과 철제 무기의 보편적 사용 및 네 바퀴를 가진 수레와 그리스 혹은 에트루리아에서 수입된 청동제 용기(예를 들면 와인 등을 보관하기 위한 krater)를 부장하는 거대 개인 무덤(이른바 princely grave)과 도시(도시화)의 등장, 그리고 교역망의 확대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² 또한 그리스인 또는 로마인의 시각에

1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들이 참조된다. 김종일(2009), 「한국 청동기 시대 남성 몸의 형성과 상징구조」,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 태학사; J-I. Kim (2005), *Formation and Change in Individual Identity between the Bell Beaker Culture and the Early Bronze Age in Bavaria, South Germany*, Oxford: Archaeopress; K. Demakopoulou et al. (1999), *Gods and Heroes of the European Bronze Age*, London: Thames and Hudson; J. Moore and E. Scott (1997), *Invisible People and Processes*,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M. L. S. Sørensen (2000), *Gender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P. Trehene (1995), "Warrior's Beauty: The Masculine Body and Self-identity in Bronze-Age Europe,"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3.

2 유럽 철기 시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들이 참조된다. T. Champion et al.

서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문자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의 앞선 선진 문명의 다양한 기술(예를 들어 토기 제작 기술이나 성벽 축조 기술)과 문화적 요소(예를 들면 와인이나 그리스 토기)들이 유럽 중부 및 서부 지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채 유적은 본격적인 철기시대인 라 텐 유적(기원전 450년~기원전 50년)의 시작과 함께 갑작스럽게 포기된다. 이를 대신해서 라 텐 문화의 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50년경 소위 오피둠(Oppidum)이 등장한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에 묘사된 바와 같이 오피둠은 수십ha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이를 둘러싼 성벽과 특징적인 성문, 청동기와 철기 및 유리 등의 생산과 장거리 교역, 그리고 성소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오피둠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지역의 도시화 과정과 비교하여 중부 및 서부 유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도시로 보기도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반론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피둠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로마의 정복과 함께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유럽 철기시대의 이러한 ‘도시화 과정’은 비록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 및 삼국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유럽 초기 철기 및 철기시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이 시기 한국의 물질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고고학에서도 청동기시대는 물론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축조되는 환호를 비롯하여 고대 국가 성립

(1984), *Prehistoric Europe*, London: Academic Press; B. Cunliffe (ed.) (1994), *The Oxford Illustrated Prehistory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Wells (1990), “Iron Age Temperate Europe: Some Current Research Issues,” *Journal of World Prehistory* 4(4), pp. 437-476; P. Wells (2002), “The Iron Age,” in S. Milisauskas, *European Prehistory: A Survey*, New York: Springer, pp. 335-348.

과 함께 목책을 비롯한 다양한 방어 시설과 토성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시설들이 암묵적으로 고대국가 성립의 증거이자 도시화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현상적으로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방어시설의 등장과 고대 국가의 성립 그리고 도시화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유럽 철기시대의 시기 구분과 편년을 바탕으로 초기철기 시대의 성채 유적과 철기시대의 오피둠의 등장과 소멸과정과 더불어 유럽 내 분포와 구조적 특징 그리고 주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채 유적 및 오피둠의 등장 배경과 소멸 과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그리고 성문 및 성벽의 기능과 상징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더하여 필자 나름의 개인적 견해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 시기 한국과 유럽의 물질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시공간적 간극 때문에 양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양자의 물질문화의 변화 과정과 이면에 있는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유럽의 사례는 한국의 방어시설의 등장과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유럽 철기시대의 개념과 편년³

1788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로마 및 스칸디나비아 지역 출토 동전의 분류와 정리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

3 2장의 일부 내용은 김종일 (2014). 「유럽 내 철기시대의 개념과 시기구분」, 『중부고고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발표요지』의 관련 내용을 대폭 요약하고 수정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고 있었던 톰센(C. J. Thomsen, 1788~1865)은 그 당시 민족주의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덴마크 각지에서 수집되어 박물관 등에 보관 중인 많은 유물들의 분류와 전시를 담당하게 되었다.⁴ 그는 한 유적에서 함께 출토된 공반 유물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유물의 재질에 따라 석기와 청동기, 그리고 철기로 구분하는 동시에 유물의 종류, 즉 범주를 구분하고 다시 그 안에서 세밀한 형식과 양식을 분류하고자 하였다.⁵ 그의 1836년 저작 『북구 고고학에 대한 가이드』(영역본은 1848년 *A Guide to Northern Archaeology*라는 이름으로 출간됨)에서 잘 살펴볼 수 있듯이, 그는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청동기시대에 사용된 석기와 철기시대에 사용된 청동기를 각각 석기시대의 석기와 청동기시대의 청동기로부터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문자 기록이 없는 덴마크의 선사시대를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들과 무덤 양식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특히 철기시대를 상상의 동물인 큰 뱀 모양의 문양이 유행하는 시기인 초기 철기시대와 용이나 다른 형태의 동물 문양이 등장하는 시기인 후기 철기시대로 구분할 수 있었다.⁶ 또한 로마 동전과 같은 공반 유물을 통한 교차 편년을 바탕으로 유럽지역 출토 철기의 절대연대를 로마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톰센은 철기시대를 칼과 같은 베기 위한 무기 또는 도구(cutting weapon or implement)가 철로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⁷ 이러한 견해는 훗날 이러한 철기의 존재 여부를 통해 초기 철기

4 유럽 선사 시대 편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B. Gräslund (1987), *The Birth of Prehistoric Chr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 Trigger (1989),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톰센의 편년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잘 소개되어 있다. B. Gräslund (1987); C. J. Thomsen (1848), *A Guide to Northern Archaeology*, London; B. Trigger (1989),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C. J. Thomsen (1848), pp. 67-70.

7 C. J. Thomsen (1848), p. 70.

시대(The Early Iron Age)와 본격적인 철기시대(Full Iron Age)를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보르소(J. J. A. Worsaae, 1821~1885) 역시 이러한 삼시기구분법을 보강한 후 이를 전 유럽에 확대하고자 시도하는 동시에 철기시대를 로마 시대 철기와 그 이후 시기의 철기시대(북유럽의 경우 바이킹 시대를 의미하며 다른 유럽지역의 경우, 비잔틴 시대의 철기문화를 의미함)로 구분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초기 철기시대를 로마 철기시대로 설정하고 중기 철기 시대를 기원후 450년에서 700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그 이후의 시기를 후기 철기시대로 설정하였다. 보르소는 이후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로마시기 이전의 선로마 철기시대가 덴마크, 그리고 유럽 전역에 존재할 수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선로마 철기시대의 존재와 본격적인 시기 구분이 가능했던 것은 1840년대 이후 존재가 확인되어 1860년대까지 자세한 보고서가 간행된 할슈타트(Halstatt) 유적과 라 텐(La tene) 유적의 발견과 조사 덕분이었다.

몬텔리우스(O. Montelius, 1843~1921)는 1860년대 할슈타트 유적의 청동기를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로 확인하여 할슈타트 유적에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의 병행 혹은 점진적 변이를 인정하였으며 라 텐 유적의 철기 연대 또한 기원 전후한 시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였다.⁸ 특히 라 텐 문화에서 발견된 유물을 문헌에서 확인되는 켈트 집단과 연관시키고자 하였다. 몬텔리우스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한스 힐데브란트(H. Hildebrand, 1942~1913)는 할슈타트와 라 텐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각각 중부 및 북부 유럽 자체의 청동기 시대 말기와 철기시대 초기의 유적으로 비정하였다.

8 몬텔리우스의 형식분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B. Gräslund (1987), pp. 56-57; O. Montelius (1903), *Die typologische Methode, Die älteren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Stocholm: Im Selbstverlag des Verfassers; (1986), *Dating in the Bronze Age: With Special Reference to Scandinavia*, Stocholm: Kungl. Vitterhets Historie och Antikvitets Akademien.

또한 할슈타트나 라 텐이라는 유적의 이름을 편년과 문화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⁹ 이를 통해 유럽 내 선로마 시기의 철기문화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체계화된 증거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몬텔리우스와 힐데브란드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제시된 유럽 철기시대의 편년은 20 세기 초에 들어와 좀 더 정교화된다. 즉, 독일의 라이네케(P. Reinecke, 1872~1958)가 남부 독일의 자료를 바탕으로 청동기 시대를 A-D시기로 구분한 바와 같이 철기시대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시기구분을 하였다. 특히 할슈타트 문화를 A-D로 구분하고 처음 A기와 B기는 청동기 시대로, 그리고 C기와 D기는 초기 철기시대로 비정하였으며, 라 텐 문화 역시 A-D기의 네 기로 나누고 이를 로마 진출 이전의 완전한 철기 시대(Full Iron Age)로 파악한 바 있다.¹⁰

이러한 라이네케의 편년체계는 이후 여러 학자들의 수정과 보완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1950년대 이후 라이네케의 편년안을 기본으로 한 정교한 수정안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코작(G. Kossack)이 1959년에 제시한 후 지속적으로 수정을 거친 유럽 철기 시대 편년안 역시 비록 완전한 철기시대의 시작 시기인 할슈타트 Ha C1기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토브루게(W. Torbrügge)와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철기 시대 편년안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¹¹ 이러한 편년안은 기본적으로 청동 및 철제 편과 브로치

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B. Gräslund (1987); J. Collis (1984b), *The European Iron Age*, Batsford: B. T. Batsford LTD.

10 P. Reinecke (1911/1965), *Mainzer Aufsätze zur Chronologie der Bronze- und Eisenzeit*. Bonn: Habelt; P. Reinecke (1924), "Zur Chronologischen Gliederung der Süddeutschen Bronzezeit," *Germania* 8, pp. 43-44.

11 철기 시대의 편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T. Champion et al. (1984); J. M. Coles and A. F. Harding (1979), *The Bronze Age in Europe*, London: Methuen and Co. Ltd.; A. Jones (ed.) (2008), *Prehistoric Europe*, Oxford: Wiley-Blackwell; G. Kossack (1957), "Zur Chronologie der ältern Hallstattzeit (Ha C) im bayerischen Alpenvorland," *Germania* 35, pp. 207-223; G. Kossack (1959), *Südbayern*

의 형식 분류 등을 상대 편년의 기본적 근거로 하지만 이와 함께 청동 및 철제 무기류와 기타 여러 유물들의 공반 및 조합관계, 예를 들어 권들링겐(Gündlingen), 민들하임(Mindleheim), 안테나(Antenna) 형식의 동검과 철검의 등장과 공반 관계 등도 편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¹² 절대 편년을 위

während der Hallstattzeit. *Römisch-Germanische Forschungen*, Band 24. Berlin: Verlag Walter de Gruyter and Co.; G. Kossack (1981), "Gedanken zur Periodisierung der Hallstattzeit," In *Die Hallstattkultur. Bericht über das Symposium in Steyr*, pp. 35-46; G. Kossack (1995), "Mitteleuropa zwischen dem 3. und 8. Jahrhundert vor Chr. Geburt. Geschichte, Stand und Probleme der Urnenfelderforschung," In *Beiträge zur Urnenfelderzeit nördlich und südlich der Alpen*, pp. 1-64 (Monographien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35); C. F. E. Pare (1998), *Beiträge zum Übergang von der Bronze- zur Eisenzeit in Mitteleuropa, Teil I*.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C. F. E. Pare (1999), *Beiträge zum Übergang von der Bronze- zur Eisenzeit in Mitteleuropa, Teil II*.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P. Phillips (1980), *The Prehistory of Europe*, London: Allen Lane; P. Rieckhoff (2008), "Geschichte der Chronologie der Späten Eisenzeit in Mitteleuropa und das Paradigma der Kontinuität," *Leipziger online Beiträge zur Ur- und Frühgeschichtlichen Archäologie* 30, pp. 1-13; W. Torbrügge (1979), Die Hallstattzeit in der Oberpfalz I, Auswertung und Gesamtkatalog. Materialh. Bayer. Vorgesch. 39; W. Torbrügge (1992), "Die Frühe Hallstattzeit (HaC) in chronologischen Ansichten und notwendige Randbemerkungen Teil I, Bayern und der 'westliche Hallstattkreis',"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 39, pp. 425-614; P. Trachsel (2004), *Untersuchungen zur relativen und absoluten Chronologie der Hallstattzeit*, Universitätsforschungen zur Prähistorischen Archäologie. Bonn: Habelt; P. Wells (2002), pp. 335-348.

- 12 청동기 후기 및 초기 철기 시대 수레 및 여타 유물의 형식과 편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J. Coles and A. F. Harding (1979); M. Friedrich and H. Henning (1996), "A Dendrodate for the Wehringen Iron Age Wagon Grave (778±5 BC), In Relation to Other Recently Obtained Absolute dates for the Hallstatt period in Southern Germany,"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4, pp. 281-303; K. Kristiansen (1998), *Europe before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 F. E. Pare (1991), *Swords, Wagon-Graves, and The Beginning of the Early Iron Age in Central Europe*, Kleine Schriften aus dem Vorgeschichtlichen Seminar Marburg-herausgegeben von der Philippps-Universität Marburg-.Heft 37. Mainz; C. F. E. Pare (1998), Beiträge zum Übergang von der Bronze- zur Eisenzeit in Mitteleuropa, Teil I.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1999), *Beiträge zum Übergang von der Bronze- zur Eisenzeit in*

그림 1. 중부 유럽 철기시대 편년

연대	시기	편년	문화	무덤 양식	지표유물
2300	초기 청동기	Bronze A	Únětice Culture	매장	청동 단검
1700	중기 청동기	Bronze B	Tumulus Culture	거대 봉분	청동검
1400		Bronze C			
1300	후기청동기	Bronze D	Urnfield Culture	화장	청동갑옷
1200		Hallstatt A1	Hallstatt Culture		
1100		Hallstatt A2			의례용 수레
1000		Hallstatt B1			
900		Hallstatt B2			
800		Hallstatt B3			
700	초기 철기	Hallstatt C		매장(왕자의 무덤)	철검
600		Hallstatt D			철단검
500		La Tène A	La Tène Culture	매장	
400		La Tène B			
300					
200		La Tène C			
100		La Tène D			
0		Roman			

해서는 기본적인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치 외에 스위스 등지의 주거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목재를 이용한 수륜연대 측정치와 중부 유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 및 로마 시기 유물, 특히 생산 및 사용연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그리스 출토 토기, 특히 아티카 양식 흑화식도기(Attic black figure pottery)

Mitteleuropa, Teil II,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를 근거로 한 교차편년이 절대연대측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³

한편 토크넨 이래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삼시기구분법은 고고학 연구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며 시대구분이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회의론도 제기된 바 있다.¹⁴ 그 근거로 유럽 각지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이 유럽 전역에 걸친 공통된 물질문화의 특징과 변이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신 시기별 그리고 지역별로 각기 다른 문화상을 보이고 있는 탓에 유럽의 대부분 지역의 선사문화를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의 단순한 틀 안에 묶어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전히 삼시기구분법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나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유럽 청동기 혹은 유럽 철기시대라는 용어가 개설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논문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⁵

현재 유럽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 선사시대 편년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청동기시대는 초기(기원전 2300년경부터 기원전 1700년경), 중기(기원전 1700년경~기원전 1200년경) 그리고 후기(기원전 1200년경~기원전 800년경)로 구분된다. 또한 청동유물과 무덤 양식 등을 토대로 청동기 문화단계를 A, B, C, 그리고 D로 구분하고 청동기 문화 A기를 초기, B와 C기를 중기 그리고 D기를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청동기 문화 D기와 더불어

13 A. Mazar (1997), "Iron Age Chronology: A Reply to I. Finkelstein," *Levant* XXIX, pp. 157-167; C. F. E. Pare (1996), "Chronology in Central Europe at the End of the Bronze Age," *Acta Archaeologica* 67, pp. 99-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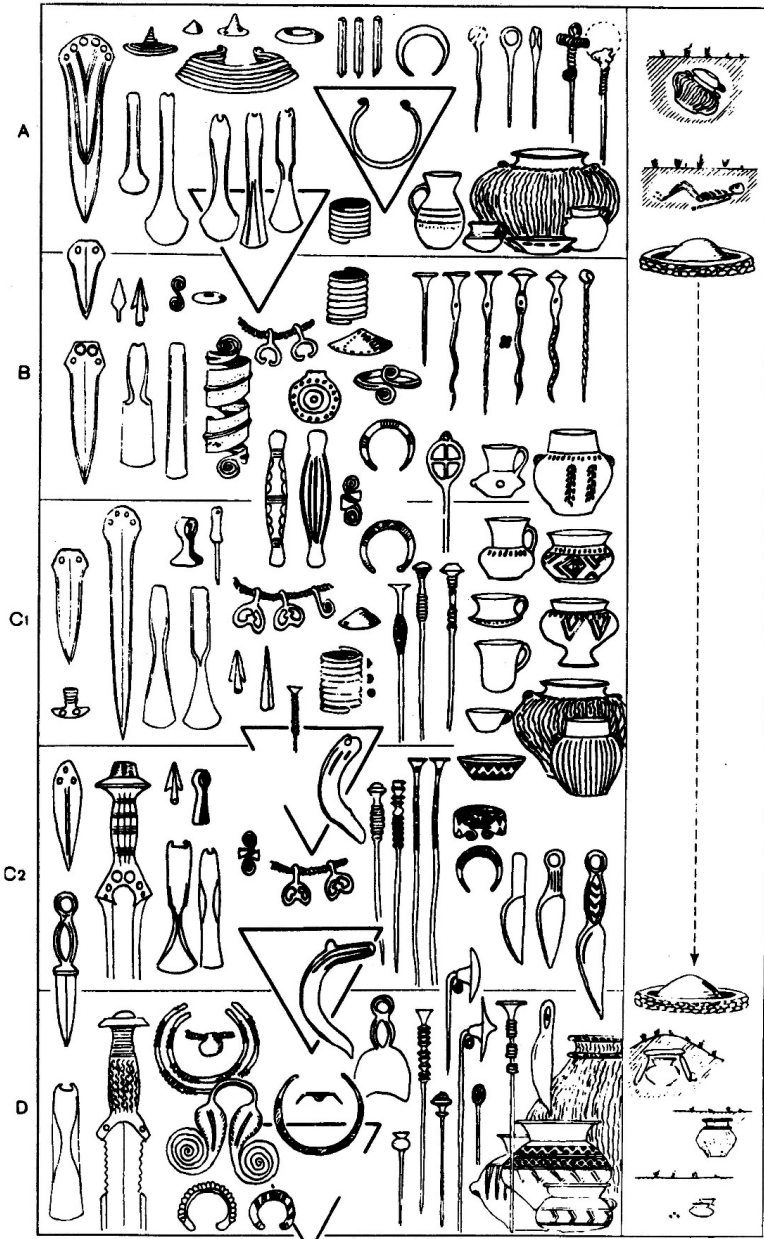
14 G. Daniel (1977), *150 Years of Archaeology* (2nd ed.), London: Duckworth, p. 251.

15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대부분의 유럽 선사시대 개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mpion et al. (1984); J. M. Coles (2000), *European Societies in the Bronz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 M. Coles and A. F. Harding (1979); J. Collis (1984b); B. Cunliffe (1994); A. Jones (2008); P. Phillips (1980).

할슈타트 문화 A기와 B기가 해당하며 기원전 800년경에 시작되어 기원전 450년경까지 존속하는 초기 철기시대에는 할슈타트 C기와 D기가 포함된다. 기원전 450년경에 등장하여 기원전후 로마의 정복과 함께 소멸하는 철기시대는 라 텐 문화에 해당하며 특히 기원전 150년경에 시작되는 라 텐 문화 D기는 오피둠이 등장하는 시기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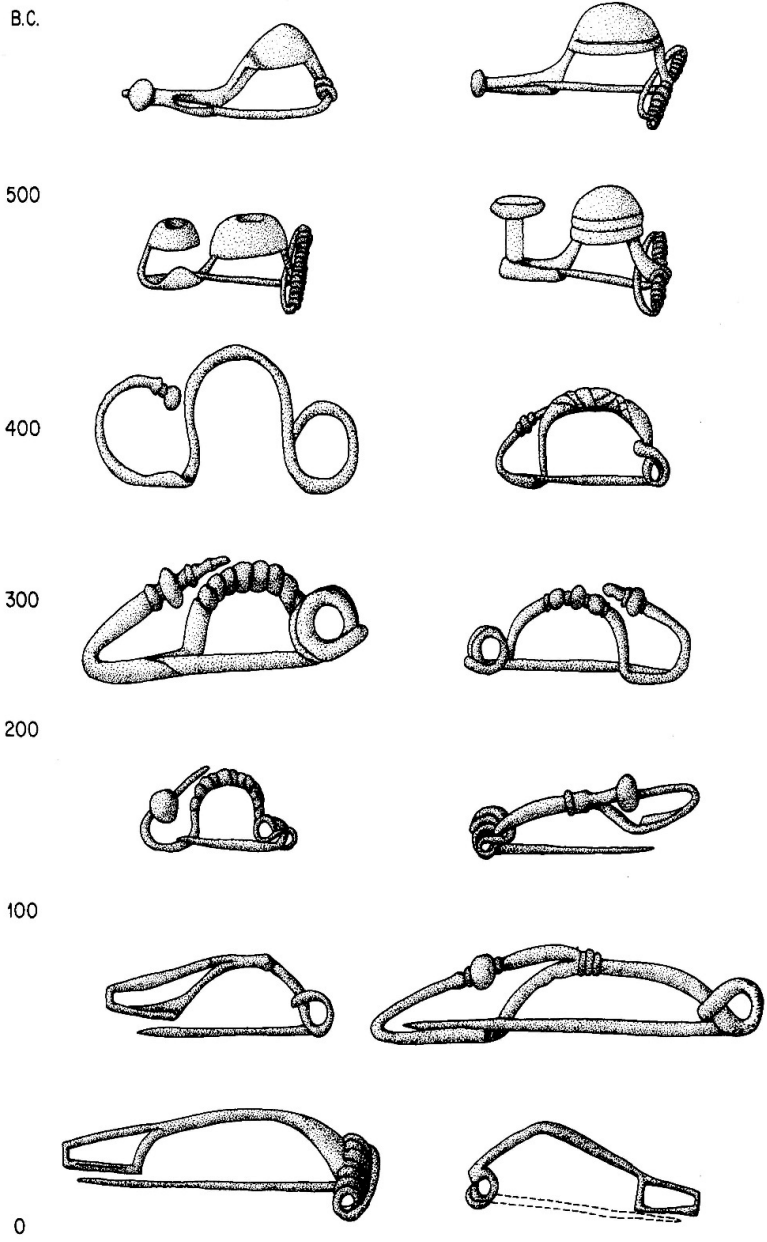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청동기시대 후기의 화장묘 문화(Urnfield culture)에 해당하는 할슈타트 A기는 대략 기원전 12세기 및 13세기 사이에 시작하며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할슈타트 C 및 D기는 각각 기원전 800년경에 시작하여 기원전 450년경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소위 왕자의 무덤(Princely grave)으로 불리는 거대 봉분을 가진 무덤은 기원전 650년경에 시작하는 할슈타트 D기에 주로 등장한다. 한편 청동기 시대 말기와 최말기에 해당하는 청동기 문화 D기와 할슈타트 A기에는 화장묘에서 매장묘 및 거대 봉분이 등장하는 차이를 갖고 있으며, 같은 초기 철기시대에 속하는 할슈타트 C기와 D기는 철제 장검이 사용되다가 다시 철제 단검이 사용되는 차이를 보여 준다.

할슈타트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12세기 이후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면서 철기제작기술이 서쪽으로 확산되어 오는 과정에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철기제작기술을 채택하여 할슈타트 A기 및 B기에 주로 등장하는 권들링겐 형식 동검이나 민들하임 형식 동검과 비슷한 형태의 철검이 할슈타트 C기에 등장하며, 할슈타트 D기에는 장검 대신 세련된 형태의 단검이 등장한다. 한편 할슈타트 C기에 등장하는 청동검 및 철검의 분포는 할슈타트 문화의 분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비해 본격적인 철기 시대인 라 텐 문화의 경우 청동 및 금제(혹은 은제) 브로치의 형식분류를 통해 매우 안정적인 상대 편년을 보여 주고 있다.



출처: J. M. Coles and A. F. Harding (1979), p. 28.

그림 2. 청동기 시대 물질문화의 변화



출처: T. Champion et al. (1984), p. 302.

그림 3. 유럽 철기 시대 편년과 브로치

3. 유럽 초기 철기시대 성채 유적(hill fort)의 등장과 개인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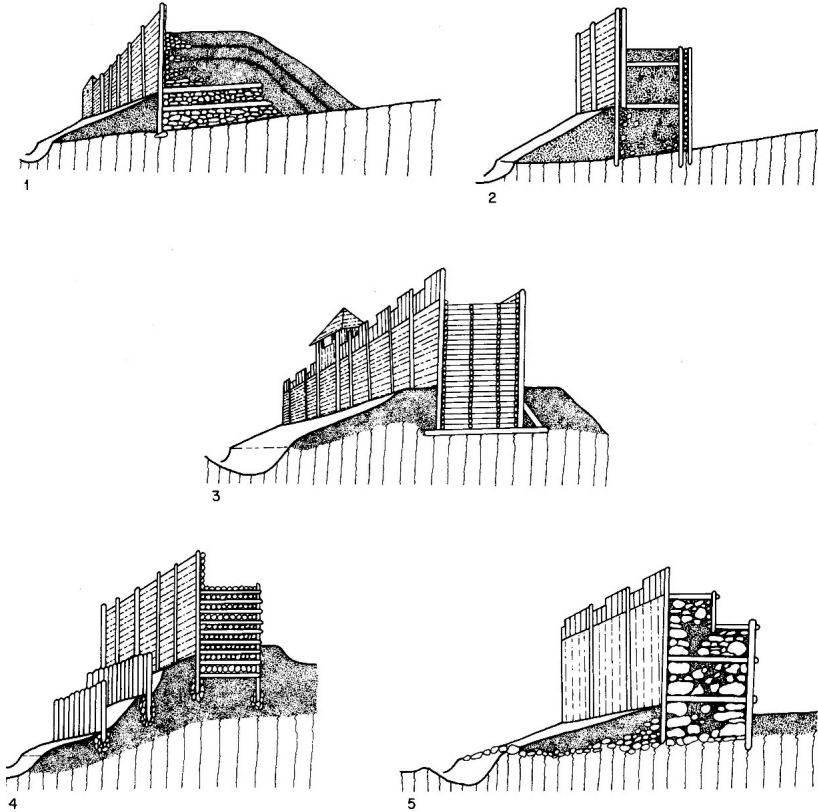
유럽의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할슈타트 C기, 즉 기원전 800년경부터 소위 성채 유적(hill fort) 유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그림 4 참조). 이러한 성채 유적은 평지 혹은 고지대에 축조되며 토루 및 환호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축조한 성벽으로 구성된다(그림 5 참조). 특히 이러한 성채 유적에서 시각적으로 매우 눈에 띄는 커다란 성문이 주목된다. 성채 유적의 성문은 영국의 힐포트 유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입구를 보호하는 다양한 토루(그림 4 참조)와 더불어 성채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과시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6 참조).

역시 할슈타트 C기에 등장하는 수레를 부장한 거대 무덤의 분포는 할슈타트 D기에 들어서 보다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erial_photograph_of_Maiden_Castle,_1935.jpg.

그림 4. 영국 도싯(Dorset) 메이든 캐슬(Maiden Castle) 유적 전경



출처: T. Champion et al. (1984), p. 281.

그림 5. 초기 철기 시대 성벽 축조 방식(Lausitz 문화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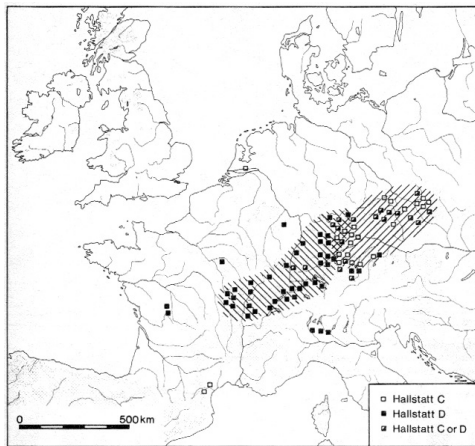
림 7 참조). 이는 수레를 부장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자들과 이들이 대표하는 정치체들의 분포가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청동 도끼를 주로 부장하는 동 할슈타트 사회에 비해 장검을 부장하는 서 할슈타트 군장사회(Western Halstatt Chiefdom Society)가 이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특히 할슈타트 D기에 속하

16 이하 서 할슈타트문화에 대한 논의는 김종일(2014), 「유럽 내 철기시대의 개념과 시기 구분」, 『중부고고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발표요지』와 권오영·김종일(2022), 『쿠르간



출처: 좌: M. Fernández-Götz and I. Ralston (2017), p. 264; 우: [https://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Biskupin_bronze_age_settlement_\(reconstruction\)#/media/File:Biskupin_-_gate_and_wall.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Biskupin_bronze_age_settlement_(reconstruction)#/media/File:Biskupin_-_gate_and_wall.jpg).

그림 6. 초기 철기시대 호이네부르그 유적(좌)과 비스쿠크인 유적(우)의 성문



출처: B. Cunliffe (1988), p. 25.

그림 7. 할슈타트 C와 D기 수레 부장묘의 분포

는 기원전 600년경에 이 지역에서 등장하는 소위 왕자의 거주지(fürstensitze)

의 확산과 유라시아 동부 고분문화』에 일부 소개된 바 있으며 이 장에서는 위의 글에서 소개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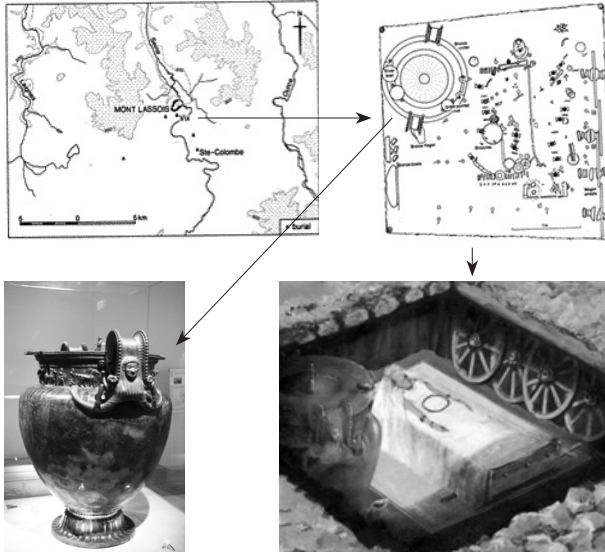
출처: M. Fernández-Götz and I. Ralston (2017), p. 261.

그림 8.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 중부 유럽 및 지중해 연안 주요 '왕자의 거주지'(Fürstensitze)의 분포

과 왕자의 무덤(princely grave)을 통해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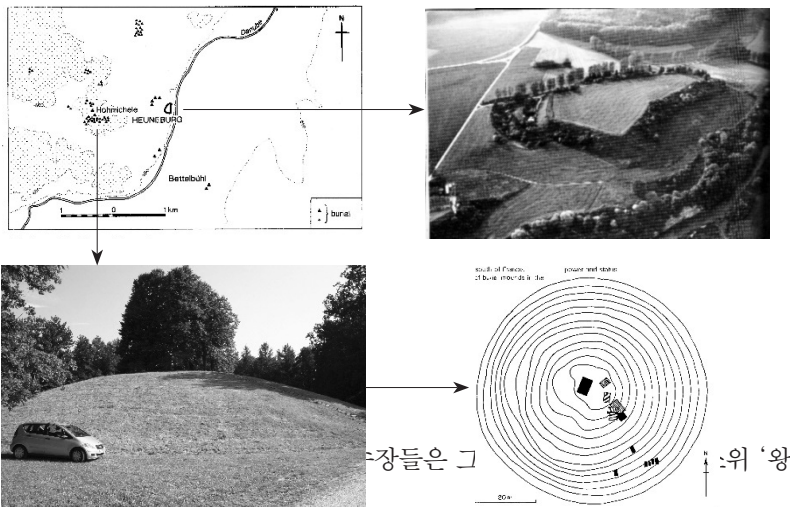
이들 왕자의 무덤은 호호도르프(Hochdorf)나 빅스(Vix) 유적과 같이 수레와 다양한 금속 용기¹⁷ 그리고 저장용 용기인 크레이터(krater)와 코드론(cauldron) 등의 외래품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 시기의 다른 무덤에 비해 탁월한 부장품을 부장하고 있다. 또한 이 무덤들은 인근의 왕자의 거주지(Fürstensitze)와 짝지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빅스(Vix) 무덤과 몽 라수와(Mont Lassois) 유적, 호르도르프(Hochdorf) 무덤과 호엔아스페르크(Hohenasperg) 유적, 그리고 호미켈레(Homichelle) 무덤과 호이네부르크(Heuneburg) 유적이 좋은 사례다(그림 9와 10 참조).

17 자세한 내용은 C. E. Pare (199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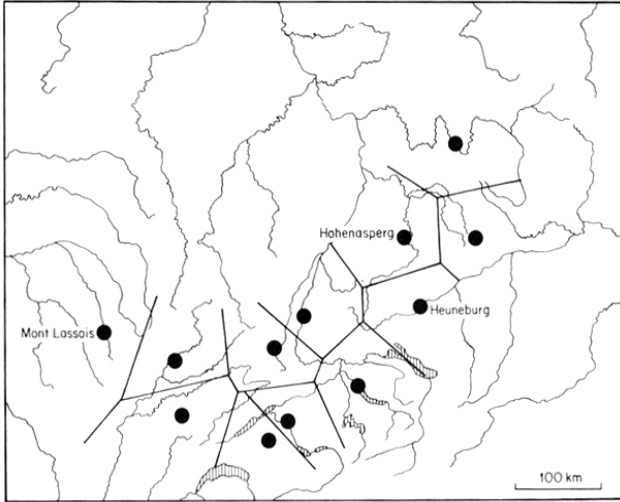
출처: 좌상: B. Cunliff (1988), p. 30; 우상: B. Cunliff (1994), p. 147; 좌하: 필자촬영; 우하: www.pinterest.nz

그림 9. 빅스 무덤과 부장품



출처: 좌상: Cunliff (1988), p. 30; 우상: Cunliff (1994), p. 346; 좌하: 필자 촬영; 우하: T. Champion et al. (1984), p. 287

그림 10. 호미켈레 무덤과 호이네부르크 성채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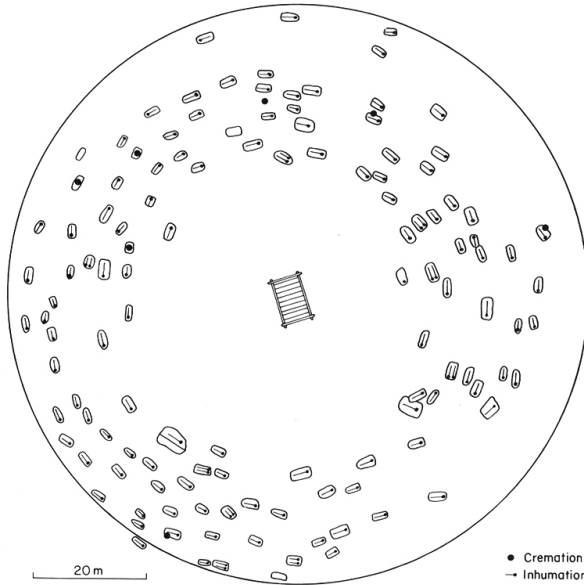


출처: T. Champion et al. (1984), p. 283.

그림 11. 서 할슈타트 지역 왕자의 주거지(Fürstensitze)의 분포와 티센 폴리곤

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거대한 봉분을 가진 무덤을 축조하였으며 이 무덤에는 수레를 비롯한 다양한 부장품뿐만 아니라, 프랑스 빅스 유적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계 장인에 의해 에트루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 거대한 음료 저장용 용기(Krater)가 부장되고 있다. 이 크레이터는 비록 에트루리아 등지에서 그리스계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와인을 섞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연회용 용기로 알려져 있다. 이 크레이터는 종래에는 이 지역의 수장이 주문제작을 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현재는 반대로 에트루리아에서 중부 유럽과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의 지배층에게 일종의 조공 혹은 선물로 선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 할슈타트 군장사회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는 대략 12개 혹은 13개의 중심정치체가 형성되는 것을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체들과 이들 정치체를 대표하는 수장층들은 상호 경쟁 및 의존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1 참조). 한편 독일 서남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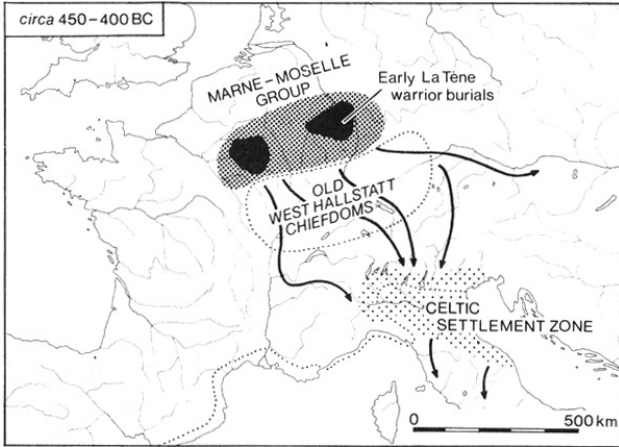
출처: T. Champion et al. (1984), p. 274.

그림 12. 기원전 6세기 독일 서남부 막달레넨베르크(Magdalenenberg) 무덤

에서 발견된 기원전 6세기 경의 막달레넨베르크(Magdalenenberg) 무덤에서 1기의 수장 무덤과 이 무덤이 완성된 후 추가된 126기의 무덤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무덤의 무덤 배치 즉, 무덤의 주 피장자인 수장과 수장의 무덤이 완성된 이후 계속적으로 추가되어 매장되는 과정을 통해 수장들과 다른 피장자들 사이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그림 12 참조).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¹⁸ 서 할슈타트 군장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동기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주석의 주요 산지인 영국의 콘월 지역이나 금 산지로 유명한 아일랜드로부터 론 강을 거쳐 이어지는 교

18 예를 들면 J. Collis (1984b); J. Collis (2003); B. Cunliffe (1988); B. Cunliffe (1994); B. Cunliffe (1997), *The Ancient Cel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등이 대표적이다.



출처: B. Cunliff (1988), p. 34.

그림 13. 기원전 5세기의 사회변화

역로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서 서 할슈타트 군장 사회는 이러한 금속 원료의 주 수입처였던 그리스 및 에트루리아와 원료의 산지였던 기타 유럽 지역 사이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그리스나 에트루리아에서는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던 마살리아(Massalia, 지금의 마르세유)를 통해 당시 유럽지역에서 위세품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던 아티카(아테네) 양식 도기(예를 들어 아티카 양식 흑화식 도기) 등을 서 할슈타트 군장 사회에 교역 또는 일종의 조공 형태로 선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위세품은 그 지역의 지배자들에 의해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하위 지배 계층에게 재분배되었을 것이다.

본격적인 철기 시대의 등장과 함께 서 할슈타트 사회로 대표되는 켈트 사회의 중심지는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중요성은 북쪽 지역의 라 텐 문화의 등장과 함께 쇠퇴한다. 즉 알프스 북쪽 지역의 지역 정치체의 중심지는 종래의 할슈타트 지역이 아닌 라 텐 문화가 등장했던 북쪽 지역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 참조). 이는 아마도 그리스나 에트루리아 등에서 기존의 마살리아 대신 소아시아를 통해 새로운 교역로

를 개척하면서 마살리아가 쇠퇴하게 되고 따라서 마살리아를 통해 위세품을 수입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다지면서 할슈타트 사회의 사회 시스템도 함께 붕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유럽 철기시대의 시기 구분과 영역, 그리고 전체적인 문화 양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그 안에 포함된 초기 철기 문화(할슈타트 C기와 D기)의 편년과 공간적 분포, 그리고 물질문화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회는 청동장검과 철검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청동기시대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독자적인 철기를 제작하고 있다.
2. 중부 유럽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이전 시기에 비해 이 시기부터는 그리스와의 관계가 매우 중시되는데 1) 그리스 및 에트루리아 등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유럽과 영국 혹은 아일랜드 등 대서양 방면 교역로를 장악하였고 2) 에트루리아 등으로부터 그리스 식민지인 마살리아를 통해 그리스계 위세품을 수입하거나 혹은 선물이나 조공의 형태로 입수하기도 하며 3)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에 노예 및 용병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정치체 내부에서 정치적 차별화가 개인 간 또는 정치체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는 무덤과 성채 유적 등의 축조와 운영 등에 의해 매개된다. 1) 대략 12개 정도의 중심지가 형성되어 권력이 집중되며 2) 개별 중심지는 대규모의 성채 유적(혹은 왕자의 주거지)과 왕자의 무덤, 그리고 여타 소규모의 무덤으로 구성되고, 따라서 3) 지배층은 왕자의 무덤에 묻힌 수장층과 여타 무덤에 묻힌 하위 수장층 등으로 구성되며 4) 위세품의 재분배 등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하고 5) 12개의 중심지는 상호 경쟁과 동시에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형성한다.
4.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에서 마살리아 대신 소아시아와 같은 여타 지역의 식민도시를 통해 동유럽 및 흑해 연안 지역과 교역하면서 서

할슈타트 사회와의 관계망에 문제가 생기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유지해 왔던 기존의 시스템은 붕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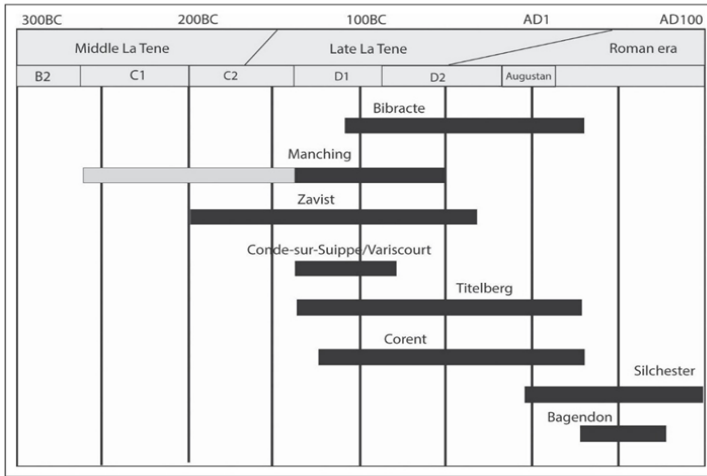
5. 지금 스위스 지역 너샤텔(Neuchâtel) 호수가의 라 텐 마을에서 발견된 유적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철기문화가 등장하면서 중부 유럽에서 권력의 중심지역이 바뀐다.

4. 유럽 철기시대 오피둠의 등장과 공동체

기원전 5세기 이후 할슈타트 문화기의 성채 유적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주거 집단이 지속적으로 산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⁹ 유럽의 각 지역에서 성문과 성벽을 가진 보다 본격적인 대규모의 집단 주거 유적, 즉 오피둠 유적이 축조되는 것은 라 텐 문화 D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50년경이다(그림 14과 15 참조).²⁰

19 기원전 5세기 이래 중부 유럽 지역의 문화변동에 대해서는 J. Collis (1984a), *Oppida: Earliest Towns North of the Alps*,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1984b); B. Cunliffe (1994); B. Cunliffe (1997) 등이 참조된다.

20 오피둠의 등장 시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J. Bofinger and G. Stegmaier (2022), "Die spätkeltische Siedlungslandschaft und die Bedeutung der Oppida in Südwestdeutschland," *Städte der Kelten Urbane Zentren der späten Eisenzeit*. Landesamt für Denkmalpflege im Regierungspräsidium Stuttgart; M. Friedrich and H. Henning (1996), "A Dendrodate for the Wehringen Iron Age Wagon Grave (778±5 BC), In Relation to Other Recently Obtained Absolute dates for the Hallstatt period in Southern Germany,"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4, pp. 281-303; A. Mazar (1997), "Iron Age Chronology: A Reply to I. Finkelstein," *Levant* XXIX, pp. 157-167; C. F. E. Pare (1996), "Chronology in Central Europe at the End of the Bronze Age," *Acta Archaeologica* 67, pp. 99-120; P. Reinecke (1911/1965), 앞의 글; S. Rieckhoff (2008); "Geschichte der Chronologie der Späten Eisenzeit in Mitteleuropa und das Paradigma der Kontinuität," *Leipziger online Beiträge zur Ur- und Frühgeschichtlichen Archäologie* 30, pp. 1-13; M. Trachsel (2004), *Untersuchungen zur relativen und absoluten Chronologie der Hallstattzeit*, Universitätsforschungen zur Prähistorischen Archäologie. Bonn: Habe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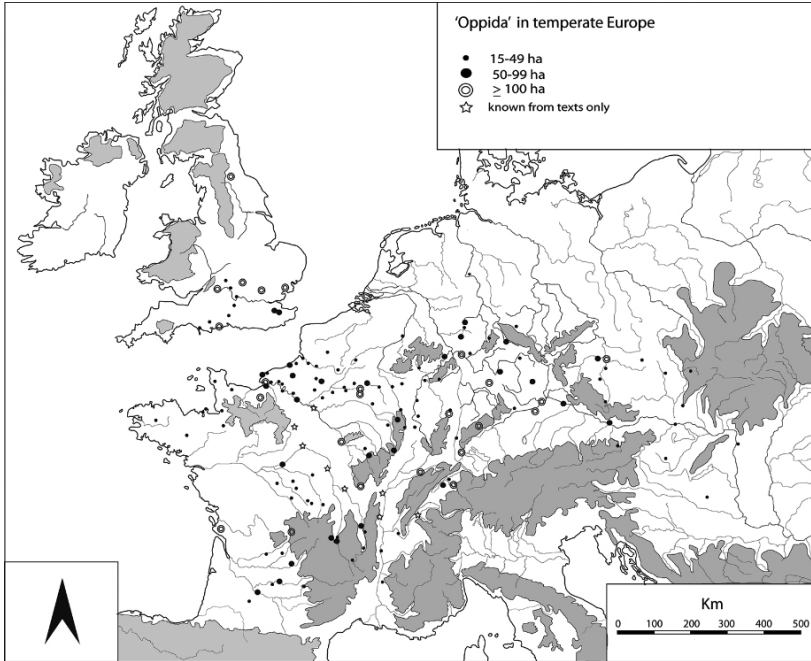
출처: T. Moore et al. (2023), p. 171.

그림 14. 주요 오피둠 유적의 축조 시점

오피둠은 카이사르가 기원전 58년에서 기원전 52년까지 진행된 갈리아족과의 전투 과정에서 목도한 갈리아족(혹은 켈트)의 마을을 『갈리아 원정기』에서 오피둠(oppidum, 복수로 oppida)으로 명명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대략 ‘마을’을 의미한다.²¹ 오피둠은 18세기 말 19세기 초반 이후, 유럽 각지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²²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나폴레옹 3세가 라 텐 문화 시기에 등장하는 오피둠에 주목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프랑스의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해 고대 로마제국에 대항하였던 갈리아족의 존재를 강조하고 이를 문헌 자료와 물질문화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21 오피둠의 어원에 대해서는 B. Cunliff (1997); B. Cunliff (2005), *Iron Age Communities in Britain* (4th edition), London: Routledge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22 오피둠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심에 대해서는 B. Cunliffe (1997)을 참조.



출처: T. Moore (2017), p. 282.

그림 15. 유럽 내 오피둠의 분포

전통적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서유럽과 중부 유럽에 살았던 종족을 켈트(Celt 또는 Kelt)족으로, 북유럽에 거주했던 종족을 게르만(German)족으로, 그리고 흑해연안에 살았던 종족을 스키타이(Scythian)족으로 불렀다.²³ 이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살았던 종족을 이베리아인(Iberian), 그리고 남동부 유럽에 존재했던 여러 종족들을 각각 일리리아인(Illyrian), 트라키아인(Thracian), 다키아인(Dacian)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 가운데 켈트족의 경우, 발이 빠르거나 재빠르다는 의미의 Κελτοί라는 그리스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안재원, 개인 교시). 이러한 켈트족이 19세기 말부터 라텐 문화의 주인공으로 설정될 수 있었던 계기는 첫째, 19세기 말 북

23 P. Wells (2002), pp. 362-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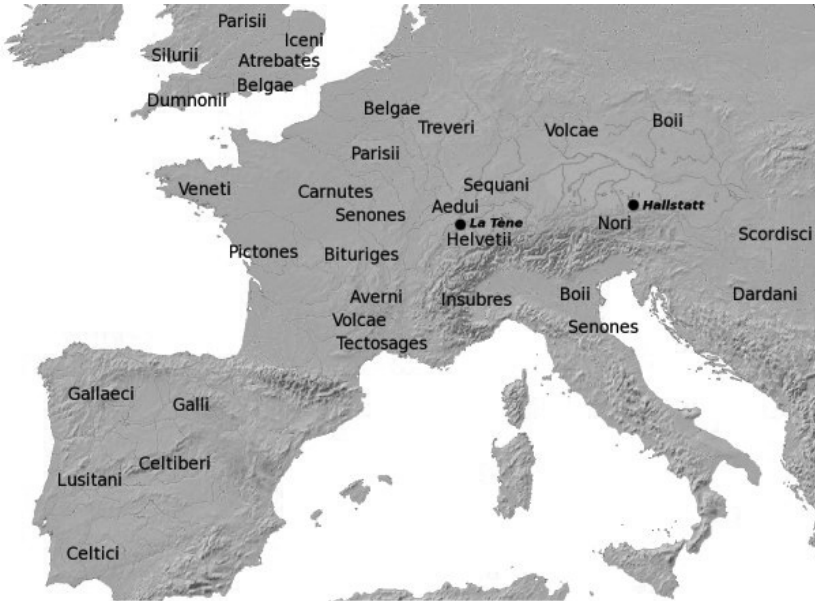
부 이탈리아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3~4세기 대 무덤의 다양한 철제 및 청동제 무기와 장신구가 비슷한 시기 북동부 프랑스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종류의 유물들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문헌 기록에 따르면 알프스 지역에서 이탈리아 지역으로 들어온 집단의 종족명이 후대의 북동부 프랑스의 종족명과 일치한다. 따라서 북부 이탈리아에서 발견되는 무덤은 알프스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즉 켈트족(혹은 갈리아족)이 남긴 것이며, 셋째, 라 텐 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시기가 그리스인들이 켈트족과 빈번하게 접촉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⁴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켈트 족 혹은 켈트 문화의 주요 분포지역(북부 이탈리아와 남동부 프랑스, 라인 강 서쪽의 북동부 프랑스 지역 등)이 라 텐 문화의 주 분포지역(중부 유럽은 물론 북부 유럽과 서부 및 동부, 그리고 남부 유럽 전역에 걸쳐서 확인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그림 16 참조).

대략 10ha에서 100ha, 때로는 그 이상의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오피둠은 19세기 이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발굴 조사된 사례를 극히 적다. 예를 들어 아이두이(Aedui)족의 거주지이자 카이사르의 겨울 숙영지였던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비브락테(Bibracte) 유적이나 평지 오피둠인 동시에 지금까지 알려진 오피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만칭(Manching) 유적의 경우에도 대략 10% 정도의 면적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을 따름이다.²⁵ 따라서 현재 오피둠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24 P. Wells (2002), pp. 364-365.

25 오피둠에 대한 발굴조사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M. Elier et al. (2012), *Zentralisierung und Urbannisierung: Maching Entwicklung zur spatkeltischen Stadt. In Die Frage der Protourbanisation in der Eisenzeit*, Bonn: Dr. Rudolf Habelt GmbH.; H. Wending (2013), "Manching Reconsidered: New Perspectives on Settlement Dynamics and Urbanization in Iron Age Centr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6(3); G. Woolf (1993), "Rethinking the Oppida," *Journal of Oxford Archaeology*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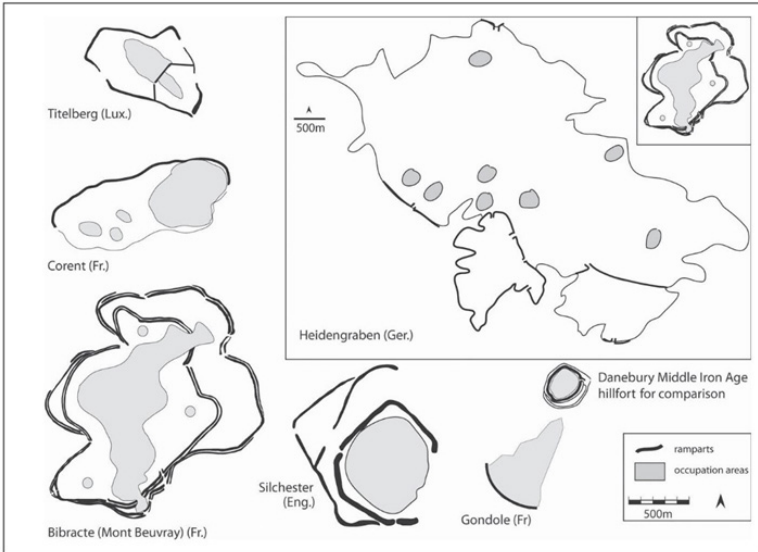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a_T%C3%A8ne_culture#/media/File:Hallstatt-LaTene.png.

그림 16. 할슈타트 및 라텐 문화와 주요 부족의 분포

까지의 연구성과를 감안하면 오피둠의 일부 구역에 성벽이나 토루 등을 축조했으며(그림 17과 18 참조). 특히 앞서 언급한 성채 유적과 유사하게 가시적으로 탁월한 모양의 성문이 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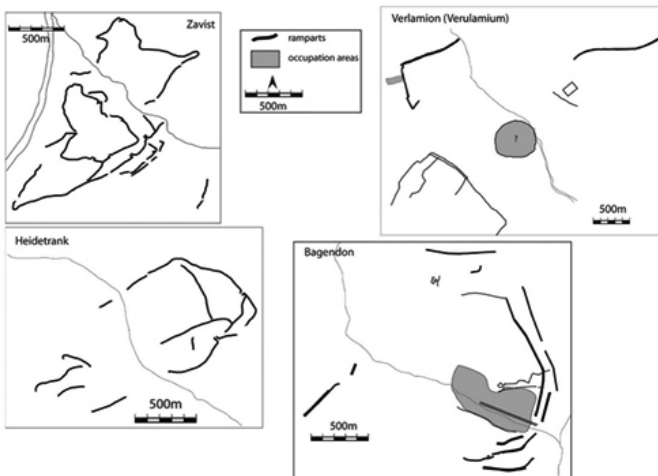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피둠은 일부를 제외하면 로마의 정복과 함께 갑작스럽게 소멸한다.²⁶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문헌 및 고고학 자료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대다수의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를 정도의 가설 역시 제시된 바 없다. 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시기에 따른 오피둠의 형성 및 점유와 변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

26 N. Garland (2020), "The Origins of British Oppida: Understanding Transformation in Iron Age Practice and Society,"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39(1); G. Woolf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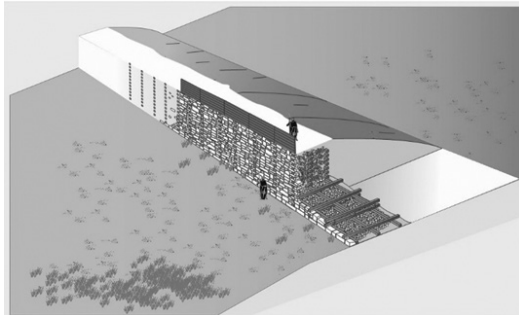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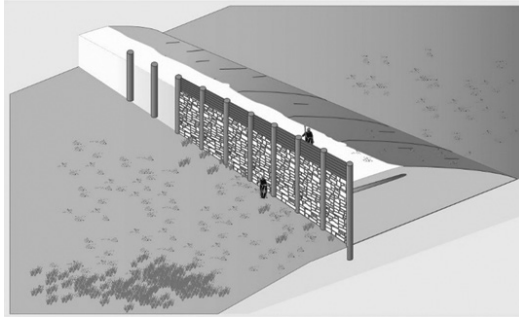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a_T%C3%A8ne_culture#/media/File:Hallstatt_LaTene.png.

그림 16. 할슈타트 및 라텐 문화와 주요 부족의 분포



출처: T. Moore (2017), pp. 284-285.

그림 17. 각 지역의 오피둠



출처: J. Bofinger and G. Stemaier (2022), p. 27.

그림 18. 오피둠의 성벽



출처: 저자 촬영.

그림 19. 독일 남부 바이에른 켈하임(Kelheim) 오피둠의 성문

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갈리아 원정기』의 기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켈트 부족들이 전황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로마의 정복과 함께 기존의 오피둠이 갑자기 포기되는 대신 로마의 도시 혹은 빌라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역사적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유럽 철기시대 방어 취락의 등장 배경과 상징적 의미

유럽의 초기 철기 및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방어시설 그리고 방어 취락인 성채 유적(hill fort)과 왕자의 거주지(fürstensitze)는 라 텐 문화 후기에 등장하는 오피둠과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자 모두 유럽 신석기시대 초기 이래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던 엔클로저(enclosure, 일정한 지역을 원형으로 둘러싼 도랑 유적)와 헨지 유적(henge, 엔클로저와 유사하되 도랑과 독으로 구성된 유적), 그리고 고지성 취락(höhensiedlung)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크기와 규모는 물론 실제 기능과 상징적 역할의 측면에서 초기 철기 및 철기시대의 방어 시설은 엔클로저나 헨지 유적과 같은 이전 시기의 거대 토목 구조물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도랑을 파고 그 옆에 목책을 두르는 등 기본적인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안과 밖을 구분하고 내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심층 의식의 차원에서는 후자가 전자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이와 동시에 토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축조 기술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²⁷

27 토루를 비롯한 성채 유적 및 오피둠의 축조 기술에 대해서는 B. Cunliffe (2005) 등이 참조된다.

청동기시대 중기 이래 장검과 단검 그리고 창과 갑옷과 같은 다양한 청동 무구와 철제 무기류 그리고 남성용 개인용품(청동제 면도칼과 핀셋 등) 등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거나 새로운 형식들이 유행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남성 개인 또는 남성성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성체 유적과 오피둠의 축조는 신석기 후기와 청동기 시대 초기에 무덤 구조 및 부장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남과 여의 범주적 구분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남성 개인과 남성성의 강조라는 상징적 맥락 안에서 가능했다.²⁸ 신석기시대 초기 및 중기 사회에서는 당시에 존재했을 다양한 집단 간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공동 무덤의 축조(예를 들어 신석기시대 중기의 장방형 고분)나 헨지 유적에서의 공동 제의(신석기 시대 중기~청동기시대 초기)와 같이 이데올로기를 통해 은폐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실제로 신석기시대 초기의 선형토기(Linear Band Keramik) 문화 등에서 발견되는 엔클로저나 신석기시대 중기 이래 축조되는 영국의 스톤헨지(Stone henge)나 에이브베리(Avebury) 유적의 경우 방어시설이 아닌 일종의 제의 중심지이자 축조 과정에 참여하거나 경관상의 기억과 체험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⁰

반면에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개인 간 그리고 집단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상징적 혹은 실제 폭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당시 사회의 주된 규범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날로 격화되는 분위기 안에서 성체 유적과 오피둠이 축조되었으며 따라서 성벽과 성문과 같은 방어 시설을 축조하여 안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28 유럽 선사시대 남성과 남성성에 대해서는 J-I. Kim (2005)와 P. Trehene (1995)를 참조.

29 I. Hodder (1984); D. Miller and C. Tilley (eds.) (1984),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lley (1984), C. Tilley (1984), "Ideology and the Legitimation of Power in the Middle Neolithic of Southern Sweden," in D. Miller and C. Tilley (eds.),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 J. C. Barrett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Oxford: Blackwell.

강조하고 밖으로는 자신들을 타자로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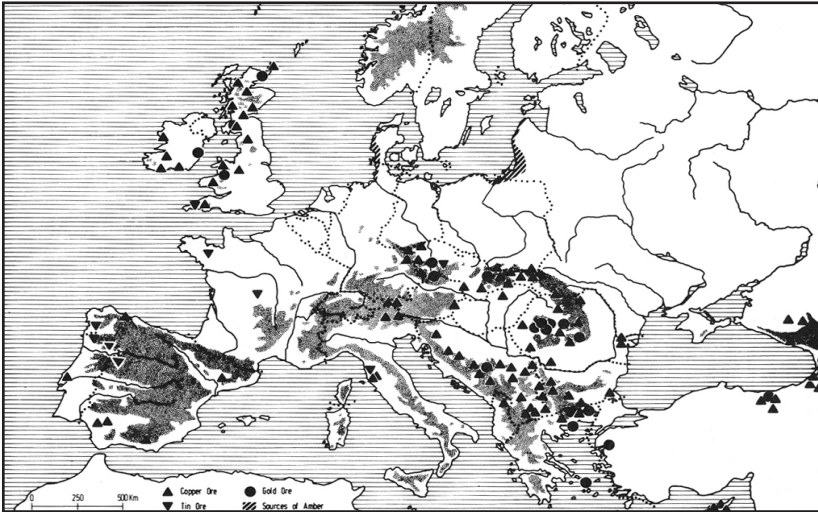
이러한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은 출고 습도가 높았던 할슈타트 문화기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온난하고 건조했던 라 텐 문화기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² 전자의 경우, 영국 북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작이나 목축에 유리한 토지가 축소됨에 따라 축소된 경작 가능한 토지와 상대적으로 덜 비옥하거나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경계 지역의 이용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이 고조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그리고 아마도 인구의 증대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상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갈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지의 문제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³³

성채 유적과 오피둠은 모두 교역에 유리한 장소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석기시대 이래 유럽에는 발트해 연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호박(amber)이 중부 및 남부 유럽으로 교환되었으며 반대로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되는 조개와 조개 장신구가 북부 유럽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도 청동 주조에 가장 필요한 주석과 금 등이 영국의 콘월 지역과 아일랜드 등지에서 중부 유럽과 그리스 지역 등으로 수입되었다(그림 20 참

31 M. Fernández-Götz (2018), "Urbanization in Iron Age Europe: Trajectories, Patterns, and Social Dynamics," *Journal of Archaeology Research* 26; M. Fernández-Götz and B. Arnold (2019), "Internal Conflict in Iron Age Europe: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Possible Scenarios," *World Archaeology* 51; H. Wending (2013), "Manching Reconsidered: New Perspectives on Settlement Dynamics and Urbanization in Iron Age Centr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6(3).

32 영국 철기 시대 시후 변동에 대해서는 B. Cunliffe (2005) 참조.

33 M. Fernández-Götz and B. Arnold (2019), "Internal Conflict in Iron Age Europe: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Possible Scenarios," *World Archaeology* 51; A. Gyucha and R. B. Salisbury (2022), *The Archaeology of Nucleation in the Old World: Spatiality, Community, and Identity*, Oxford: Archaeopres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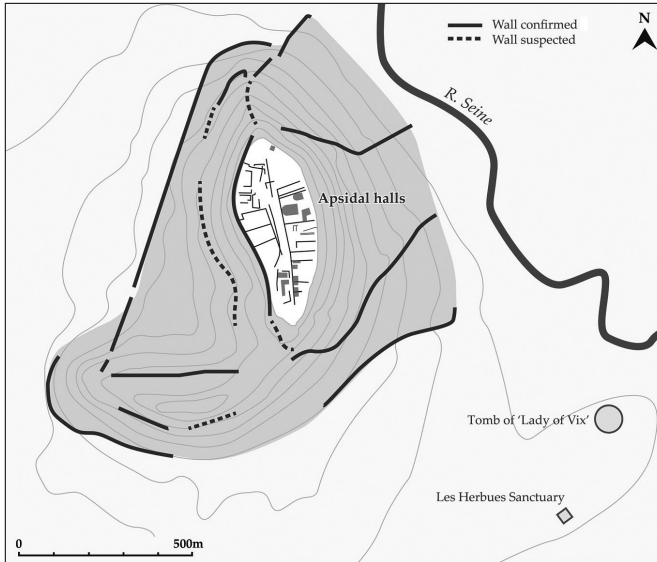
출처: M. Gimbutas (1965); J. M. Coles and A. F. Harding (1979), p. 9에서 재인용.

그림 20. 유럽 내 금속 자원의 분포

조).³⁴

한편 유럽 내에서 광범하게 분포하는 동에 비해 주석 산지는 영국의 콘월 지역과 이베리아 반도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아마도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에서 소비되었던 엄청난 양의 청동기를 고려하면 유럽 내의 주석뿐만 아니라 흑해 연안 지역에서도 주석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노예 또한 북부 유럽에서 중부 및 그리스 등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할슈타트 문화기에 소금 교역 또한 유럽 내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이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광역의 교역망을 감안하면 이러한 교역의 중심지에 성채 유적과 오포덤이 위치

34 T. Champion et al.(1984); J. M. Coles (2000); *European Societies in the Bronz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 M. Coles and A. F. Harding (1979); K. Kristiansen (1998); *Europe before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 Kristiansen and T. B. Larsson (2004), *The Rise of Bronze Age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Philips (1980)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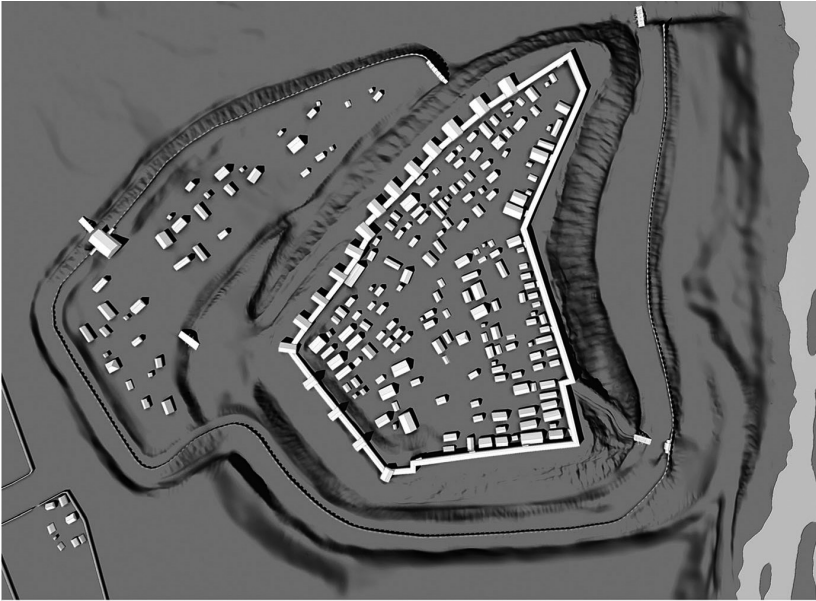


출처: M. Fernández-Götz and I. Ralston (2017), p. 265.

그림 21. 할슈타트 D기 몽 라수와(Mont Lassois) 성채 유적

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왕자의 무덤’에 묻혔거나 이러한 무덤을 축조한 엘리트나 오피둠의 최상층 계층은 이러한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혹은 이러한 교역의 과정에서 획득한 이익을 재분배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들이 주도적으로 성채 유적 및 오피둠을 축조했을 것이다.³⁵

35 오피둠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는 B. Arnold and D. B. Gibson (1995), *Celtic Chieftdom and Celtic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Ballmer et al. (eds.) (2018), *Understanding Ancient Fortifications: Between Regionality & Connectivity*, Oxford: Oxbow; M. Fernández-Götz (2018), “Urbanization in Iron Age Europe: Trajectories, Patterns, and Social Dynamics,” *Journal of Archaeology Research* 26; M. Fernández-Götz et al. (2014), *Paths to Complexity*, Oxford: Oxbow; M. Fernández-Götz and B. Arnold (2019), “Internal Conflict in Iron Age Europe: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Possible Scenarios,” *World Archaeology* 51; A. Gyucha and B. Salisbury (2022)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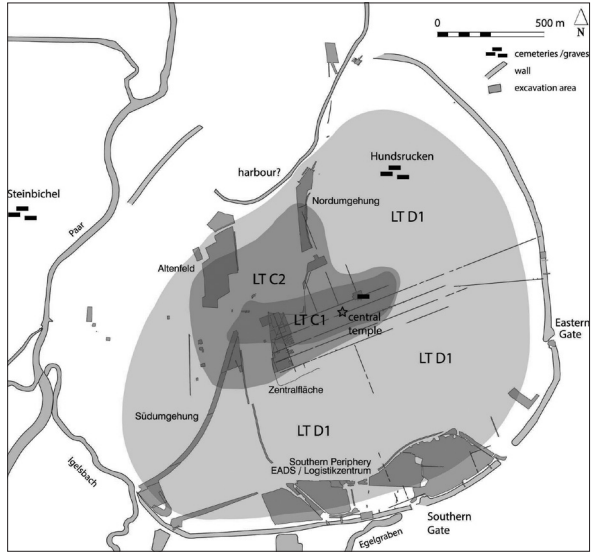
출처: M. Fernández-Götz (2018), p. 123.

그림 22. 할슈타트 D기 호이네부르크(Heuneburg) 성채 유적 내부 건물 배치도

성채 유적과 오피둠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몽 라수와 성채 유적(그림 21 참조)과 호이네부르크(Heuneburg) 성채 유적(그림 22 참조)에서 대형의 주거용 건물 및 집회 장소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제작이 이루어진 공방이 확인되고 있다. 만HING(Manching) 오피둠(그림 23 참조), 비브락테(Bibracte) 오피둠(그림 24 참조), 켈하임(Kelheim) 오피둠(그림 25 참조)에서도 주거용 건물과 청동기 및 철기 공방뿐만 아니라 유리 제작 공방도 확인된다.³⁶ 특히 만HING 유적에서 독자적인 동전 주조가 행해졌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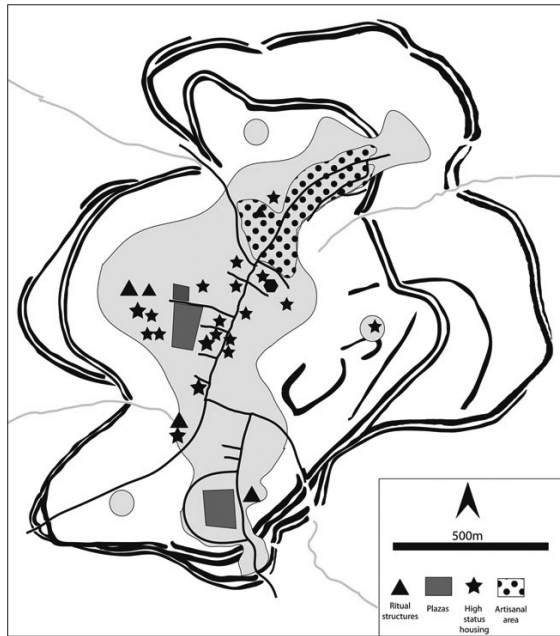
성채 유적과 오피둠 내부에는 집회와 제의에 사용되는 공동 건물 또는

36 e.g. H. Wending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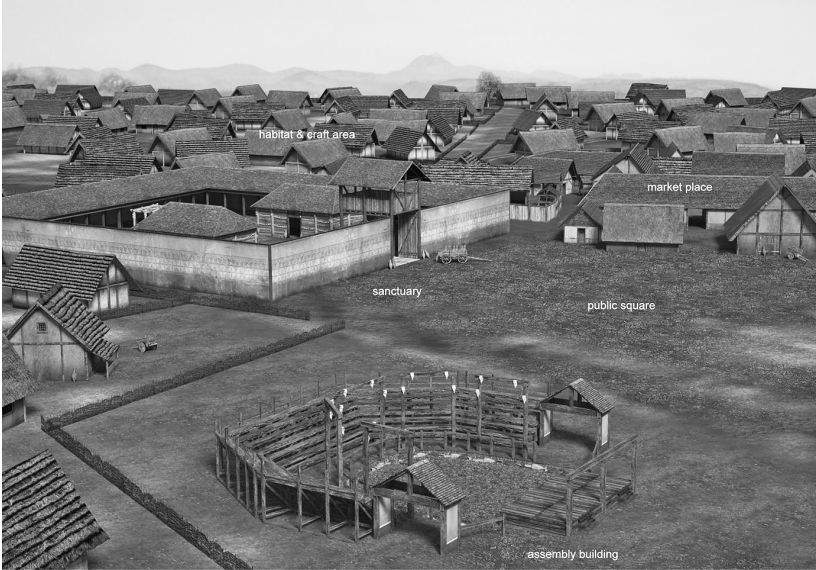
출처: Moore et al. (2023), p. 175.

그림 23. 라 텐 D기 만칭(Manching) 오피둠



출처: T. Moore (2017), p. 293.

그림 24. 라 텐 D기 비브락테(Bibracte) 오피둠



출처: M. Fernández-Götz (2018), p. 143.

그림 25. 오피둠의 내부 구조 상상도

성소가 위치해 있다.³⁷ 특히 만형 오피둠의 경우, 오피둠 내부에 오피둠 축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복수의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오피둠이 성소가 이미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축조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채 유적과 오피둠이 이 지역의 교역 및 생산, 그리고 집회와 의례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채 유적과 오피둠 모두 기본적으로 방위에 유리한 위치에 입지하거나 방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축조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실제 전투나 전쟁에서 방어용 시설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서양 고전기의 전쟁과 관련한 대표적인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드』에 묘사된 대부분의 전투는 공성전이 아닌 성 앞의 공

37 K. Winger (2021), "Ritualisation as a Spatial Practice: The Case of Manching," in S. Rau and J. Rüpké (eds.), *Religion and Urbanity Online*, Berlin & Boston: De Gruyter.

지에서 이루어졌으며 『갈리아 원정기』³⁸에도 공성전과 관련한 기록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갈리아 원정기』에 성벽과 토루 또는 망루를 가진 도시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증언하며 심지어 카이사르는 켈트족의 성벽축조방식(예를 들어 『원정기』 권7의 23)은 물론 부족 간의 전투에서 투석을 하거나 지하에 굴을 파는 방식으로 성벽에 접근하여 성을 공격하는 장면(『원정기』 2권 6)을 묘사하는 등 다양한 공성 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켈트족은 로마 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성을 방어하는 방법(『원정기』 권5의 42와 권7의 22)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의 방책과 해자 그리고 공성탑이나 토루를 쌓는 방식을 로마군 포로들을 통해 배워 직접 응용하기까지 하였다(『원정기』 권5의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의 공성전과 이에 대한 켈트족의 방어와 관련된 기사는 『원정기』 권7에 묘사된 기원전 52년의 아바리쿰 포위와 함락에 관한 기사를 포함하여 소수의 사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원정기』 권5에 묘사된 브리타니아 원정에 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켈트족은 전차전을 벌이거나 기병을 활용하여 숲 또는 저습지에서 매복하거나 기습을 하는 등 지형상의 유리함을 이용하여 전투를 벌이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또한 로마군의 토루 또는 공성탑 근처까지 굴을 파서 접근하거나 투석을 이용하여 전투를 벌이는 로마군의 진지를 공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켈트족의 전투 방식과 전투에 대한 인식은 『원정기』 권7에서 알 수 있듯이 베르킨게토릭스가 로마군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20여 곳의 도시를 불태움으로써 로마군이 도시를 함락시킨 이후 이를 재활용할 가능성을 미리 없애 버리거나 아바리쿰 함락 후 베르킨게토릭스가 자신의 패배를 로마군이 용감한 방식이 아닌 계략과 그들에게 생소한 포위작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방어시설을 활용한 농성전은 켈트족이 선호하거나 자주 채용되는 방어 전략

38 이 글에서는 카이사르(2012), 천병희 역, 『갈리아 원정기』(이하 원정기)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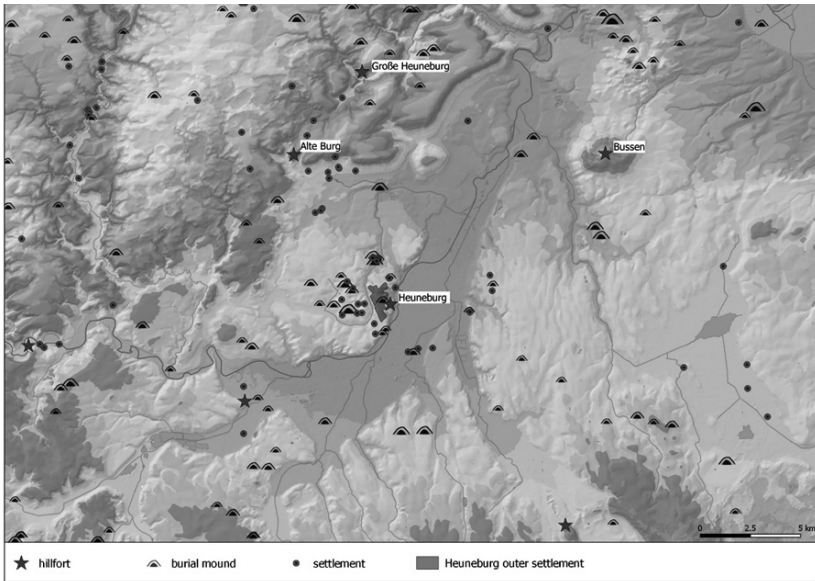
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성채 유적과 오피둠이 방어에 활용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폭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안과 밖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집단과 공동체의 안전함을 도모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성채 유적과 오피둠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방어 시설이 실제 전투와 전쟁에서 반드시 활용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상징적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성채 유적과 오피둠 유적이 집회 그리고 의례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그림 25 참조).

한편 성채 유적 및 오피둠 모두 출입구 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복잡한 형태의 토루나 성문은 이러한 토루나 성문을 이용하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토루나 성문을 통과하는 등의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매우 특별한 시각적 경험과 체험을 갖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체험은 기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왕자의 무덤’으로 대표되는 거대 봉토 무덤을 축조했던 할슈타트 문화기의 유력 개인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단순한 매장 혹은 화장묘가 유행했던 라 텐 문화기에는 성문의 주기적인 증개축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문(혹은 성벽)과 성문의 지속적인 증개축이 단순한 출입구 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권위와 권력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강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말해 준다.

성채 유적과 오피둠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의 도시 그리고 도시화 과정과 비교하여 유럽 선사 시대에 등장하는 최초의 도시 그리고 도시화 과정의 사례로 여겨져 왔다.³⁹ 실제로 성채 유적과 오피둠에는 유력 개

39 P. Brun (1995), "From Chiefdom to State organization In Celtic Europe," in B. Arn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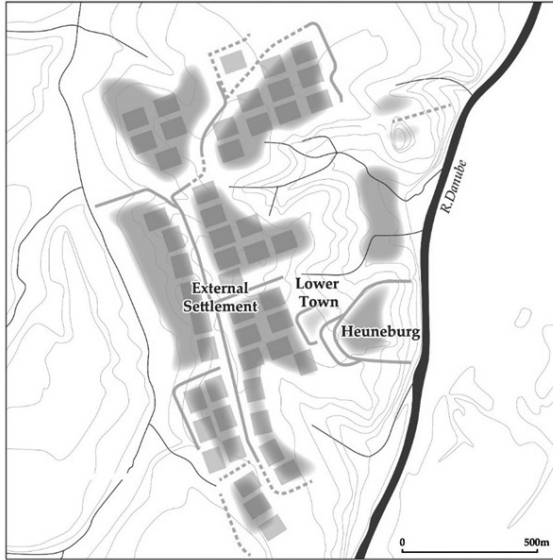


출처: D. Krause et al. (2020); T. Moore and M. Fernández-Götz (2022), p. 105에서 재인용.

그림 26. 호이네부르크(Heuneburg) 성채 유적과 주변 유적 집단

인 혹은 집단이 거주하면서 생산과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집회와 제의의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성벽과 성문의 지속적인 증개축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과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채 유적과 오피둠을 통해 안과 밖을 구분하고 공동체의 실제적 혹은 상징적 안전함을 도모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론은 일견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종래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채 유적과 오피둠에 비단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와 양, 돼지를 비롯한 각종 동물들을 기르는 등 목축과 사육 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은 이미 널리 확인된 바 있으며 성채와 오피둠에 인접하여 다수의 주거 집단이 존재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고 있다(그림 26, 그림 27,

and D. B. Gibson (eds.), *Celtic Chieftdom and Celtic State*, pp. 13–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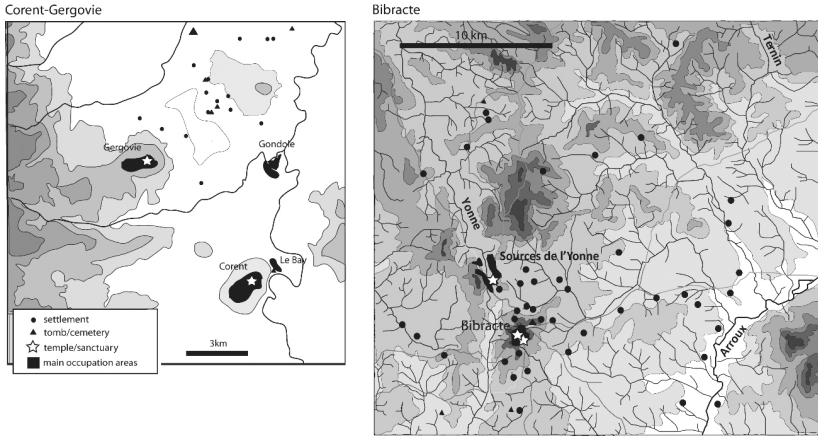
출처: M. Fernández-Götz and I. Ralston (2017), p. 263.

그림 27. 호이네부르크(Heuneburg) 성채에 인접한 주거 집단

그림 28 참조).⁴⁰

일반적으로 도시는 (주로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주변지역에 비해 정치와 행정, 그리고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성채 유적과 오피둠의 경우, 공방을 비롯하여 교역이나 재분배, 그리고 집회와 의례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주변의 주거 집단에 대해 일종의 ‘도시’로서 중심지의 기능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주변의 주거 집단이 이러한 ‘도시’의 배후지로서

40 M. Elier et al. (2012), *Zentralisierung und Urbannisierung: Maching Entwicklung zur spatkeltischen Stadt*. In *Die Frage der Protourbanisation in der Eisenzeit*, Bonn: Dr. Rudolf Habelt GmbH; K. Winger (2021), K. Winger (2021), “Ritualisation as a Spatial Practice: The Case of Manching,” in S. Rau and J. Rüpke (eds.), *Religion and Urbanity Online*, Berlin, Boston: De Gruyter.



출처: T. Moore and M. Fernández-Götz (2022), p. 104.

그림 28. 비브락테(Bibracte) 오피둠과 인근 주거 집단들

역할을 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⁴¹ 오히려 성채 유적과 오피둠이 주변 세력과의 관계속에서 도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농업) 생산을 담당하거나 성채 유적과 오피둠 내의 주거 집단만을 위한 교역과 의례의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후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성채 유적과 오피둠은 도시 혹은 중심지가 아

41 오피둠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T. Moore (2017a), "Alternatives to Urbanism? Reconsidering Oppida Summary. The Question of Whether Late Iron Age Oppid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30; T. Moore (2017b), "Beyond Iron Age 'TOWNS': Examination OPPIDA AS Examples of Low-density Urbanism,"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36(3); T. Moore and M. Fernández-Götz (2022), "Bringing the Country to Town 'Rurban' Landscapes in Iron Age Europe," *Journal of Urban Archaeology* 5; T. Moore et al. (2023), "Considering European Iron Age Oppida and Comparative Urbanism," *Journal of Urban Archaeology* 7; S. Stoddart (ed.) (2017), *Delicate Urbanism in Context: Settlement Nucleation in Pre-Roman Germany*, Cambridge: McDonald Institute for Archaeological Research; H. Wending (2013), "Manching Reconsidered: New Perspectives on Settlement Dynamics and Urbanization in Iron Age Centr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6(3); Woolf (1993), "Rethinking the Oppida," *Journal of Oxford Archaeology* 12(2)을 참조.

년 이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주거 집단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채 유적과 오피둠을 ‘도시’ 혹은 ‘도시화’의 사례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도시 혹은 도시화(urbanization) 대신 ‘urban’과 ‘rural’을 합한 ‘ruban’ 혹은 ‘polyfocal’의 개념을 사용하여 오피둠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⁴²

이러한 성채 유적과 오피둠이 갑자기 포기되거나 소멸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성채 유적과 오피둠이 광역의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집단들과 이 집단들의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여러 집단들 가운데 규모가 큰 하나의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때, 환경이나 상징체계의 변화 혹은 전쟁과 같은 특정한 사건이나 조건 속에서 쉽게 기존의 성채 혹은 오피둠을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용이한 소규모 집단으로 해체 혹은 되돌아가거나 이동을 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상정해볼 수 있다. 아마도 성채 유적이거나 오피둠이 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이와 관련하여 무어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T. Moore (2012), “Beyond the Oppida. Polyfocal Complexes and Late Iron Age Societies in Southern Britain,”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31(4); T. Moore (2017a), “Alternatives to Urbanism? Reconsidering Oppida Summary. The Question of Whether Late Iron Age Oppid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30; T. Moore (2017b), “Beyond Iron Age ‘TOWNS’: Examination OPPIDA AS Examples of Low-density Urbanism,”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36(3).

6. 맺음말

지금까지 유럽의 초기 철기시대인 할슈타트 시기(대략 기원전 7세기 이후)와 본격적인 철기 시대인 라 텐 문화 후기(대략 기원전 150년경) 이후에 등장하는 성채 유적과 오피둠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성채 유적과 오피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최근 새롭게 제시되는 시각을 소개하는 동시에 소멸 원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약간의 가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에 등장하는 오피둠은 원래 일종의 ‘마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켈트족에 속하는 여러 부족들의 마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오피둠은 최소 10ha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그 안에 주거지는 물론 각종 생산 시설은 물론 농경지, 상업 시설, 그리고 성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둠과 이전 시기의 성채 유적은 생산과 교환을 포함한 경제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견해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오피둠을 도시화의 시작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성채 유적과 오피둠이 유럽 신석기 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개인과 정치체의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성채 유적과 오피둠이 실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성채 유적과 오피둠, 특히 후자가 실제 방어 시설로서 기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오피둠은 평시에는 오피둠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방어 시설로서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갈리아 원정기』와 더불어 지금 남아 있는 오피둠 유적에서 화재 등에 의한 파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의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오피둠은 주기적인 성문의 증개축을

통해 그러한 증개축을 주도했던 지배층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로마의 정복과 함께 이러한 오피둠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피둠이 그 지역에서 여러 주거 집단 가운데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주위의 주거 집단을 배후지로 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주거 집단 가운데 규모가 큰 주거 집단의 하나였을 따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오피둠은 중부 유럽에서 본격적인 ‘도시’의 시작이 아니라 ‘도시화’로 이르는 긴 여정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오영·김종일(2022), 『쿠르간의 확산과 유라시아 동부 고분문화』, 디자인 공방.
- 김종일(2014), 「유럽 내 철기시대의 개념과 시기구분」, 『중부고고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발표요지』, 중부고고학회.
- 김종일(2009), 「한국 청동기 시대 남성 몸의 형성과 상징구조」,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 이태진 교수 정년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태학사.
- 카이사르(2012), 천병희 역, 『갈리아 원정기』, 숲.
- Arnold, B. and D. B. Gibson (1995), *Celtic Chieftdom and Celtic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lmer, A. et al. (eds.) (2018), *Understanding Ancient Fortifications: Between Regionality & Connectivity*, Oxford: Oxbow.
- Barrett, J. C.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Oxford: Blackwell.
- Boffingen, J. and G. Stegmaier (2022), “Die spätkeltische Siedlungslandschaft und die Bedeutung der Oppida in Südwestdeutschland,” in J. Boffingen and G. Stegmaier (eds.), *Städte der Kelten*, Stuttgart: Herausgegeben vom Landesamt für Denkmalpflege im Regierungspräsidium Stuttgart.
- Brun, P. (1995), “From Chieftdom to State organization In Celtic Europe,” in B. Arnold and D. B. Gibson (eds.), *Celtic Chieftdom and Celtic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15.

- Champion, T., C. Gamble, S. Shennen, and A. Whittle (1984), *Prehistoric Europe*, London: Academic Press.
- Coles, J. M. (2000), *European Societies in the Bronz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s, J. M. and A. F. Harding (1979), *The Bronze Age in Europe*, London: Methuen and Co. Ltd.
- Collis, J. (2003), *The Celts*, Stroud: Tempus Publishing Ltd.
- Collis, J. (1984a), *Oppida: Earliest Towns North of the Alps*,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 Collis, J. (1984b), *The European Iron Age*, Batsford: B. T. Batsford LTD.
- Cunliffe, B. (2005), *Iron Age Communities in Britain* (4th edition), London: Routledge.
- Cunliffe, B. (1997), *The Ancient Cel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unliffe, B. (ed.) (1994), *The Oxford Illustrated Prehistory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unliffe, B. (1988), *Greeks, Romans & Barbarians*, London: B. T. Batsford Ltd.
- Daniel, G. (1977), *150 Years of Archaeology* (2nd ed.), London: Duckworth.
- Demakopoulou, K. et al. (1999), *Gods and Heroes of the European Bronze Age*, London: Thames and Hudson.
- Eller, M. et al. (2012), *Zentralisierung und Urbannisierung: Maching Entwicklung zur spatkeltischen Stadt. In Die Frage der Protourbanisation in der Eisenzeit*, Bonn: Dr. Rudolf Habelt GmbH.
- Fernández-Götz, M. (2018), "Urbanization in Iron Age Europe: Trajectories, Patterns, and Social Dynamics," *Journal of Archaeology Research* 26.
- Fernández-Götz, M. and B. Arnold (2019), "Internal Conflict in Iron Age Europe: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Possible Scenarios," *World Archaeology* 51.
- Fernández-Götz, M. and I. Ralston (2017), "The Complexity and Fragility of Early Iron Age Urbanism in West-Central Temperate Europe," *Journal of World Prehistory* 30.
- Friedrich, M. and H. Henning (1996), "A Dendrodate for the Wehringen Iron Age Wagon Grave (778 ± 5 BC), In Relation to Other Recently Obtained Absolute dates for the Hallstatt Period in Southern Germany,"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4, pp. 281-303.
- Fernández-Götz, M. et al. (2014), *Paths to Complexity*, Oxford: Oxbow.
- Garland, N. (2020), "The Origins of British Oppida: Understanding Transformation in Iron Age Practice and Society,"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39(1).
- Gimbutas, M. (1965), *Bronze Age Cultur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aris: Mouton.
- Gräslund, B. (1987), *The Birth of Prehistoric Chr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yucha, A. and R. B. Salisbury (eds.) (2022), *The Archaeology of Nucleation in the Old World: Spatiality, Community, and Identity*, Oxford: Archaeopress.

- Hodder, I. (1984), "Burials, Houses, Women and Men in the European Neolithic," in D. Miller and C. Tilley (eds.),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1-68.
- Jones, A. (ed.) (2008), *Prehistoric Europe*, Oxford: Wiley-Blackwell.
- Kim, J-I. (2005), *Formation and Change in Individual Identity between the Bell Beaker Culture and the Early Bronze Age in Bavaria, South Germany*, Oxford: Archaeopress.
- Kossack, G. (1995), "Mitteleuropa zwischen dem 3. und 8. Jahrhundert vor Chr. Geburt. Geschichte, Stand und Probleme der Urnenfelderforschung," in *Beitäge zur Urnenfelderzeit nördlich und südlich der Alpen*, pp. 1-64 (Monographien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35).
- Kossack, G. (1981), "Gedanken zur Periodisierung der Hallstattzeit," in *Die Hallstattkultur. Bericht über das Symposium in Steyr*, pp. 35-46.
- Kossack, G. (1959), *Südbayern während der Hallstattzeit. Römisch-Germanische Forschungen*, Band 24, Berlin: Verlag Walter de Gruyter and Co.
- Kossack, G. (1957), "Zur Chronologie der ältern Hallstattzeit (Ha C) im bayerischen Alpenvorland," *Germania* 35, pp. 207-223.
- Krause, D., L. Hansen, and R. Tarpini (2020). "Earliest Town North of the Alps: New Excavations and Research in the Heuneburg Region" in L. Zamboni, M. Fernández-Götz, and C. Metzner-Nebelsick (eds.), *Crossing the Alps: Early Urbanism between Northern Italy and Central Europe (900-400 bc)*, Leiden: Sidestone, pp. 299-317.
- Kristiansen, K. (1998), *Europe before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istiansen, K. and T. B. Larsson (2004), *The Rise of Bronze Age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zar, A. (1997), "Iron Age Chronology: A Reply to I. Finkelstein," *Levant* XXIX, pp. 157-167.
- Miller, D. and C. Tilley (eds.) (1984),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isauskas, S. (2002), *European Prehistory: A Survey*, New York: Springer.
- Montelius, O. (1986), *Dating in the Bronze Age with Special Reference to Scandinavia*, With an introduction by Bo Gräslund, Stockholm: Kungl. Vitterhets Historie och Antikvitets Akademien.
- Montelius, O. (1903), *Die typologische Methode*, Die ältere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I. Stockholm: Im Selbstverlag des Verfassers.
- Moore, T. (2017a), "Alternatives to Urbanism? Reconsidering Oppida Summary. The Question of Whether Late Iron Age Oppid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30.
- Moore, T. (2017b), "Beyond Iron Age 'TOWNS': Examination OPPIDA AS Examples of Low-density Urbanism,"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36(3).
- Moore, T. (2012), "Beyond the Oppida. Polyfocal Complexes and Late Iron Age Societ-

- ies in Southern Britain,”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31(4), pp. 391–417.
- Moore, T. and E. Scott (1997), *Invisible People and Processes*,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 Moore, T. and M. Fernández-Götz (2022), “Bringing the Country to Town ‘Rurban’ Landscapes in Iron Age Europe,” *Journal of Urban Archaeology* 5.
- Moore, T. et al. (2023), “Considering European Iron Age Oppida and Comparative Urbanism,” *Journal of Urban Archaeology* 7.
- Pare, C. F. E. (1999), *Beiträge zum Übergang von der Bronze- zur Eisenzeit in Mitteleuropa, Teil II*,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 Pare, C. F. E. (1998), *Beiträge zum Übergang von der Bronze- zur Eisenzeit in Mitteleuropa, Teil I*,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 Pare, C. F. E. (1996), “Chronology in Central Europe at the End of the Bronze Age,” *Acta Archaeologica* 67, pp. 99–120.
- Pare, C. F. E. (1991), *Swords, Wagon-Graves, and The Beginning of the Early Iron Age in Central Europe*, Kleine Schriften aus dem Vorgeschichtlichen Seminar Marburg–herausgegeben von der Philipps–Universität Marburg–Heft 37, Mainz.
- Reinecke, P. (1924), “Zur Chronologischen Gliederung der Süddeutschen Bronzezeit,” *Germania* 8, pp. 43–44.
- Reinecke, P. (1911/1965), *Mainzer Aufsätze zur Chronologie der Bronze- und Eisenzeit*, Bonn: Habelt.
- Phillips, P. (1980), *The Prehistory of Europe*, London: Allen Lane.
- Rieckhoff, S. (2008), “Geschichte der Chronologie der Späten Eisenzeit in Mitteleuropa und das Paradigma der Kontinuität,” *Leipziger online Beiträge zur Ur- und Frühgeschichtlichen Archäologie* 30, pp. 1–13.
- Sørensen, M. L. S. (2000), *Gender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Stoddart, S. (ed.) (2017), *Delicate Urbanism in Context: Settlement Nucleation in Pre-Roman Germany*, Cambridge: McDonald Institute for Archaeological Research.
- Tilley, C. (1984), “Ideology and the Legitimation of Power in the Middle Neolithic of Southern Sweden,” in D. Miller and C. Tilley (eds.),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sen, C. J. (1848), *A Guide to Northern Archaeology*, London.
- Torbrügge, W. (1992), “Die Frühe Hallstattzeit (HaC) in chronologischen Ansichten und notwendige Randbemerkungen Teil I. Bayern und der ‘westliche Hallstattkreis’,”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 39, pp. 425–614.
- Torbrügge, W. (1979), *Die Hallstattzeit in der Oberpfalz I*, Auswertung und Gesamtkatalog. Materialh. Bayer. Vorgesch. 39.
- Trachsel, M. (2004), *Untersuchungen zur relativen und absoluten Chronologie der Hallstattzeit*, Universitätsforschungen zur Prähistorischen Archäologie. Bonn: Ha-

- belt.
- Trehene, P. (1995), Warrior's Beauty: The Masculine Body and Self-identity in Bronze-Age Europe,"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3.
- Trigger, B. (1989),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lls, P. (2002), "The Iron Age," in S. Milisauskas, *European Prehistory: A Survey*, New York: Springer, pp. 335-348.
- Wells, P. (1990), "Iron Age Temperate Europe: Some Current Research Issues," *Journal of World Prehistory* 4(4), pp. 437-476.
- Wendling, H. (2013), "Manching Reconsidered: New Perspectives on Settlement Dynamics and Urbanization in Iron Age Centr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16(3).
- Whitley, J. (2001), *The Archaeology of Ancient Gree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ger, K. (2021), "Ritualisation as a Spatial Practice: The Case of Manching," in S. Rau and J. Rüpke (eds.), *Religion and Urbanity Online*, Berlin, Boston: De Gruyter.
- Woolf, G. (1993), "Rethinking the Oppida," *Journal of Oxford Archaeology* 12(2).

원고 접수일: 2024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4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5월 10일

ABSTRACT

Emerging Process of Defensive Walls in European Iron Age and Its Background

Kim, Jongil*

This article attempts to review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oppidum, which emerged from about 150 BCE (the late European Iron Age to the late La Tene culture) and to examine some new perspectives and hypotheses on its role and function and furthermore, the reason of its sudden disappearance. Originally “oppidum (pl. oppida)” was a term used by Caesar in his *De Bello Gallico*, to describe a ‘town’ occupied by various Celtic tribes. Oppida tend to occupy at least more than 10 ha, in which various productive facilities, agricultural field, commercial facilities and sanctuaries are located in association with settlements. And thus,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oppidum functioned as a central place for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that of politics and religion. Focusing on this role and function, it has been acknowledged that the oppidum can be regarded as strong evidence of urbanization in Central Europe.

Contrary to the above, this article argues that it necessary to grasp the appearance of the hillfort sites of the Early phase of the Iron Age in Europe and of the oppidum of the Late phase within the context of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long-term process of growth in term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at began with the Neolithic period in Europe. This article also stresses that, although the oppidum featured defensive walls, regarded as one of its roles, but it is still unclear whether such walls were of practical use in war. So to speak, it is proposed that the oppidum played the role of emphasizing communal identity by dividing the inside and the outside, and that it may have acted as a political, economic, and religious centre in the place where it was located in peaceful times. It is assumed, however, that its role as a defensive wall would have been restricted in wartime. This inference is indirectly evidenced by the very limited remains of oppida that were destroyed by fire, as well as documents on real battle against the Roman army which were described by Caesar. Rather, the oppidum demonstrates to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ruling class, who led the construction and modification of the gates of oppida, which were enhanced and strengthened by such construction and modification processes.

The oppidum suddenly disappeared with the Roman conquest of the region. The reason for this is still unclear, but it can be presumed that, instead of being regarded as a centre which could control other neighboring towns, the oppidum was merely a bigger town among other peer towns. Therefore, one needs to grasp the oppidum within the context of a transitional phenomenon which involved the long-term process toward urbanization, rather than regarding it as an urban city itself in Central Europe.

Keywords European Iron Age, Halstatt Culture, La Tene Culture, Defense Facilities, Defensed Village, Hill Fort Site, Oppidum, Symbolic Structure

